

# 백제역사유적지구서 세계유산축전

13일~29일 5개 테마로 운영  
익산·공주·부여 등 백제왕도  
3개 지역 처음으로 공동 참여  
공연·체험 다채로운 프로그램

익산시는 '2021년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를 주제로 펼쳐진다.  
축전은 13일 오후 7시 미륵사지에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익산과 공주, 부여 등 3개 지역이 4원 중계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익산시청 공식 유튜브)한다.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같이 백제로(路)! 야간공연, 백제로(路) 별빛마실, 백제로RPG, 백제의꿈 설치미술, 백제로(路) 액처콘서트 등 5개의 테마로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폐막식은 별도의 현장 행사 없이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축전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준용해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며 온라인과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계유산 축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백제 세계유산 축전 공식 홈페이지(www.baekjeworldheritage.kr)와 익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i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 공주, 부여 등 백제왕도 3개 지역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세계유산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지역간 상생과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관계자와 주민들이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해 축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고창군·지역어민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축하행사

“고창의 보물로 잘 지켜낼 것”  
생태지구 등 6차 산업화 박차

고창군과 지역 어민들이 한데 모여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축하했다. 특히 세계유산 그랜드슬램 달성(고인돌, 갯벌, 농악, 판소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높아지며 역사문화·생태관광 도시로의 발전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창군은 최근 심원면 갯벌에서 고창군과 13곳의 어촌계를 비롯한 수산인, 생태환경 단체들이 한데 모여 세계자연유산 등재 축하 행사를 열었다.  
어촌마을 주민들과 참석자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함께 기뻐했다. 주변에서 갯벌체험을 하며 휴가를 즐기던 관광객들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응원을 보냈다.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특성상 암반 해안

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 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팔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을 보여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고창군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보존, 관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창갯벌과 가장 가까운 심원면 염전부지 216만2925㎡(65만평)를 매입해 '노을과 함께 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를 짓고, 2단계로 염생식물원, 자연생태원,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갯벌 보존과 현장교육이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로 고창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한역사유적'과 '삼국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과학관 최초로 '바리스타 로봇' 설치

남원시 로봇산업진흥원 공모 선정  
남원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 국가예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과학관 중 최초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서비스용 바리스타 로봇 1대를 설치한다.  
바리스타 로봇은 미세한 센서들이 부착돼 있는 6축 단관절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정확한 비율로 커피의 샷을 내릴 수 있는 전자용 로봇 커피머신이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측은 오는 10월께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바리스타 로봇을 설치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4차 산업기술이 집약된 바리스타 로봇 설치로 관람객들이 국내 로봇기술의 발전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준 남원시장은 "바리스타 로봇은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선도적인 관광 문화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천문대는 지역관광에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전경. 과학관 최초로 자동으로 커피를 뽑는 바리스타 로봇이 설치된다.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에 리모델링을 마친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서남권 대표적인 천문과학관시설이다. 최근 '패러글라이딩 VR' 체험과 영화 속 아이언맨이 되어 하늘을 나는 '플라잉VR', '자이로 VR' 체험 등을 설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군산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군산시는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소방·경찰 등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방범, 교통, 재난 등 각 분야의 CCTV를 통합 운영하며 영상을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 육군 군산대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군산경찰서 순찰차 단말기에도 영상을 실시간

으로 전송해 각종 재난과 범죄,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어린이나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국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달의 공전 '광한루 달빛야행' 시작된다

9월 21일까지 매주 목~토요일 밤  
판소리 체험, 역사·문화 해설탐방

남원시는 광한루원에서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밤 8시에 '하늘나라 전설 광한루 달빛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광한루 달빛야행”은 아름다운 남원의 야경을 널리 홍보하고 문화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판소리 체험과 야간 해설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관광객들은 완월정 누각 위에서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판소리 한 대목을 배우고, 어둠이



절어지던 청사초롱을 든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사랑의 다리 '오작교'를 지나 광한루로 발걸음을 옮긴다.

광한루 누각 아래에서는 남원의 역사, 문화, 조경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를 문화관광해설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준다.  
은은한 불빛아래 전통미가 아름다운 한옥호텔과 돌담길의 고즈넉함이 운치를 더하는 남원에 촌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광한루 달빛야행'은 관광객,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 이내로 참가비는 무료다.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코로나19에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정 인원수를 제한했다"며 "남원에서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만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내장산 워터파크 바닥분수 29일까지 개장

정읍시는 내장산 워터파크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바닥분수를 개장하고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바닥분수 소독을 진행한다. 바닥분수에 하루 2회 이상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주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한다. 또한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통해 물로부터의 코로나

19 감염 우려와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  
내장산 워터파크 바닥분수는 2019년에 최초 설치됐다. 57개의 LED 조명과 분수 노즐로 구성된 대규모로 운영 중이다. 설치 이후 꾸준히 여름철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내장산 워터파크는 화려한 음악분수와 시원한 바닥분수의 조화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최고의 피서지로 인기몰이를 중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